

소상공인 창업 인테리어 가이드

브랜드 설계부터 계약 · 공사 · 오픈까지

무료 핵심 요약본

Park Heeyun

인테리어 디자이너 · 공간 브랜드 디자이너

Instagram @heeyun.studio

PART 01

모든 오브젝트는 브랜드 언어입니다

공간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업체에 먼저 연락하거나, 인스타그램에서

예쁜 공간 사진을 모아두고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후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브랜드 방향 없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공간 안의 모든 것은 브랜드 언어입니다. 테이블 위 작은 화분 하나, 카운터 위 조명 하나, 메뉴판 폰트 하나까지 — 모든 것이 고객에게 브랜드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예쁜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브랜드의 이야기를 공간으로 구현하는 작업입니다.

브랜드 방향이 먼저 잡혀야, 공간이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네이밍, 로고, 컬러, 조명, 가구, 소품 하나하나가 같은 방향을 향할 때 고객은 그 공간을 기억합니다.

포인트

예쁜 공간과 브랜드가 있는 공간은 다릅니다. 예쁜 공간은 사진이 찍히지만, 브랜드가 있는 공간은 기억됩니다. 기억되는 공간이 단골을 만들고, 단골이 소개를 만듭니다.

브랜드 설계가 먼저인 이유

공사를 먼저 시작하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조명을 고를 때 기준이 없어서 '예쁜 것'을 고르게 됩니다. 가구를 고를 때도 '분위기 있는 것'을 고르게 됩니다. 소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은 예쁘게 모아놓으면 뭔가 따로 노는 느낌 — 이게 바로 브랜드 없이 만든 공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반대로 브랜드 방향이 먼저 잡혀 있으면 모든 선택에 기준이 생깁니다. '이게 내 브랜드와 맞는가'를 물으면 됩니다. 선택이 빨라지고, 후회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PART 02

브랜드 컨셉을 잡는다는 게 뭔가요

컨셉을 잡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막막해합니다. '따뜻한 느낌', '감성적인 공간'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다고 하죠.

사실 컨셉은 세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첫째, 내 공간의 분위기는 어떤 감정을 주는가.

편안하게 오래 앉아 있고 싶은 공간인지, 들어서는 순간 설레는 공간인지, 조용하고 집중되는 공간인지. '예쁜가'가 아니라 '어떤 감정을 주는가'가 기준입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 오길 원하는가.

'모든 사람'은 답이 아닙니다. '퇴근 후 혼자 조용히 쉬고 싶은 30대 직장인'처럼 상황이 그려질수록 공간 설계 방향이 구체적으로 잡힙니다.

셋째, 우리 공간만이 줄 수 있는 차별성은 무엇인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는 카페', '로컬 작가의 작품이 있는 공간' — 이런 작은 포인트 하나가 그 공간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네이밍·로고·컬러·조명·가구·소품 모든 선택에 기준이 생깁니다. '이게 내 브랜드와 맞는가'를 물으면 됩니다.

내 브랜드 방향 워크시트

아래 항목을 채워보세요.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을 꺼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항목	내용
공간 분위기 한 문장	
타겟 고객 (상황 포함)	
차별화 포인트	
브랜드 키워드 3가지	
메인 컬러 방향	
가고 싶은 공간 (레퍼런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마음에 드는 공간을 발견했을 때 바로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 후에 발견하면 이미 늦습니다.

상권 분석 — 내 타겟이 오는 곳인가

상권 분석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 브랜드의 타겟 고객이 실제로 오는 곳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내 타겟이 아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 4번 이상 — 평일 낮, 평일 저녁, 주말 낮, 주말 저녁 — 다른 시간대에 방문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비가 오는 날도 한 번 가보세요.

계약 조건 — 계약서에 없는 건 없는 겁니다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건물주가 해주겠다고 했다'는 말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원상복구 범위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가**
계약 시점 사진 첨부 필수 — 퇴거 시 분쟁 예방
- **관리비 항목과 전기 요금 방식을 확인했는가**
개별 계량기 vs 공용 배분 — 여름 전기세 차이 큼
- **누수 이력을 서면으로 확인했는가**
완성된 인테리어 뜯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 예방
- **간판 설치 규정을 확인했는가**
위치·크기·조명 방식 제한 있을 수 있음
- **원상복구 범위·중도 해지 조건이 계약서에 있는가**
과도한 위약금 조항 사전 협의 필수

⚠ 주의

계약서 서명 전 법무사 또는 부동산 전문가에게 계약서 검토를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비용은 10~20만 원 수준이지만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 가지

예산은 항상 처음 생각보다 더 들어갑니다. 이걸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창업자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실수 1 — 철거 후 숨은 변수를 예산에 안 넣는다

벽을 뜯고, 바닥을 들어내고, 천장을 열어보아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수 흔적, 전기 배선 노후화, 배관 문제 — 이런 것들은 공사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공사 예산의 최소 15~20%는 예비비로 반드시 남겨주세요.

실수 2 — 예산을 공사비만 계산하고 나머지를 빠뜨린다

공사 예산만 계획하고 가구·장비·소품·운영 예비비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에 예산을 다 쏟아붓고 나서 가구 살 돈이 없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전체 창업 비용 = 보증금 + 권리금 + 공사비 + 장비 + 가구 + 초도 물품 + 운영 예비비(최소 3

개월)를 모두 합산해서 계획하세요.

실수 3 — 설계 변경 비용을 모른다

공사가 시작된 후 '이건 다르게 하고 싶다'는 요청은 모두 추가 비용입니다. 특히 이미 진행된 목공·바닥 공사를 되돌리는 건 새로 하는 것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공사 전에 설계를 최대한 확정 해두는 것이 예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PART 05

오픈 전 최종 체크 — 한눈에 보기

인쇄해서 벽에 붙여두고 하나씩 체크하세요.

✓	항목	구분
<input type="checkbox"/>	벽·바닥·천장 마감 하자 없는가	인테리어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컬러·분위기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동선 직접 걸어보기 완료	
<input type="checkbox"/>	영업신고·허가 완료	인허가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 완료	

✓	항목	구분
<input type="checkbox"/>	소방 완비증명서 발급	인허가
<input type="checkbox"/>	카드 단말기 · POS 세팅	장비
<input type="checkbox"/>	모든 장비 가동 테스트	
<input type="checkbox"/>	전기 동시 가동 차단기 테스트	
<input type="checkbox"/>	수도 · 배수 테스트	
<input type="checkbox"/>	메뉴판 · 가격표 완성	
<input type="checkbox"/>	초도 재고 확보	운영
<input type="checkbox"/>	직원 교육 완료	
<input type="checkbox"/>	SNS 계정 세팅 완료	마케팅
<input type="checkbox"/>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input type="checkbox"/>	오픈 예고 콘텐츠 게시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이 요약본이 도움이 됐다면, 전체본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1개 업종별 상세 체크리스트와 필수 장비 리스트, 동선 설계 포

인트 — 카페, 베이커리, 식당, 스테이, PT샵, 미용실, 네일샵, 의류
숍, 소품숍, 꽃집까지 업종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전체본
에 있습니다.

공사 예산 계획 워크시트, 업체 선정 체크리스트, 견적서 읽는 법,
오픈 후 사후관리 전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방향 설정부터 공간 컨셉 설계까지 함께 만들어가
는 컨설팅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미지는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함께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전체본 구매

소상공인 창업 인테리어 가이드 — 브랜드 설계부터 계약 · 공사
· 오픈까지

[전체본 구매하기 →](#)

컨설팅 문의

브랜드 방향 · 공간 컨셉 · 인테리어 방향 설계를 처음부터 끝까
지 함께 만들어드립니다.

[컨설팅 문의하기 →](#)

공간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